

‘범여 비례연합’ 초읽기

민주당 오늘 당원 투표 완료
찬성 결론시 연합정당 논의 탄력
정의당 등 입장 변화 주목
27일까지 후보 파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을 위한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녹색당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들 정당의 참여가 현실화할 경우 범여권 비례정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권리당원 80만여명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 찬반을 묻는 모바일 투표에 돌입했다. 투표 문항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답변은 ‘찬성’ 또는 ‘반대’를 택하도록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미래한국당) 등장으로 보수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래한국당이 연동형 비례 의석을 독식할 경우 원내 1당을 빼앗기고 개혁 입법 과제 등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아래 이번 사안을 전 당원 표결에 부쳤다. 13일 오전 6시 투표가 종료되면 당일 오전 최고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받고 참여 여부

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들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상당 부분 형성돼 있어 당원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확정되면 정의당·민생당·미래당·녹색당 등 범진보 진영 원내·외 정당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의당은 부정적 입장이고 민생당은 당내 의견이 엇갈리지만, 민주당

이 참여를 공식 결정하고 협의를 시도할 경우 당내 논의의 흐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녹색당은 13~14일 참여 여부를 놓고 당원 총투표를 한다. 합류가 결정될 경우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외곽의 연합정당 추진 세력이 ‘정치개혁연합’(가칭), ‘시민을 위하여’(가칭), 열린민주당 등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이들과 함께 연합정당의 틀을 통합하는 작업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파견을 마쳐야 한다. 또한 정당투표에서 앞 기호를 받기 위해 현역 의원 ‘끼주기’를 시도한다면 그 역시 이때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연합뉴스

‘코로나 추경’ 증액 목소리

7개 상임위, 6조2천억원 의결...정부안서 54% 늘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증액 요구가 6조2000억원을 넘어서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소관 부처의 예산이 편성된 정부, 기획재정, 교육,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등 7개 상임위는 심사 과정에서 총 6조260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 제출 예정인 14조8202억원, 세입경정 3조2000억원 등 총 18조202억원을 두고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안(11조7000억원)보다 54%가량 늘어난 규모다.

상임위별로 산업위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을 원안 2조478억원(산자부 3620억원·중기부 1조6858억원)에서 4조666억원 증액

한 6조1144억원으로 의결했다.

산자부 소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에 4467억6000만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방역 지원, 마스크 등 위생용품 보급에 142억원 증액 등 총 7625억9200만원이 늘어났다.

중기부 소관에서는 기업 등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확대 공급 등을 위해 1700억원, 피해 상가 특별환급 개선 등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 226억원 등 총 3조3039억9000만원을 증액했다.

정무위는 정부안보다 2374억원을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기업은행이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1578억원을 편성했는데 정무위는 대출 규모 추가 확대를 위해 예산을 1974억원 더 늘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의당 잇단 비례대표 논란 ‘고심’

류호정 ‘대리 게임’ 사과...신장식 ‘음주운전’ 논란

정의당이 비례대표 후보 일부의 도덕성 논란으로 고심에 빠졌다. 일단 신속한 수습을 위해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는 한편 의원단 회의 소집 등을 통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의당은 1번 류호정 씨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 게임’ 논란과 관련, 류씨가 다니던 게임회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류씨는 LoL 게이머이자 BJ로 알려진 인물이다. 1992년생으로, 당선되면 ‘최연소’ 의원 타이틀이 예상된다. 대학 시절 e스포츠 동아리의 회장직을 맡으며 활동했고, 이후 게임회사에 취업해 노동조합을 만들려다 권고 사직했다. 전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합섬유식품 산업노조 선전홍보부장 등을 지냈다.

논란은 그가 대학생 시절인 2014년 자신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

서 게임 실력을 불풀린 데서 시작했다. 당시 류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 게재와 함께 동아리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후 게임회사 취업과 정에서 대리 게임으로 얻은 티어(레벨)를 이력서에 기재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례대표 6번으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경력 논란에 휩싸인 신장식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총장은 2006~2007년 음주운전 1회 및 무면허운전 3회 적발 전력이 있다.

핵심 관계자는 “검증 과정이 부실했던 것을 인정한다”며 “다만 당원·시민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된 내용을 지도부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이르러 13일 의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신 전 총장에 대한 처분 등을 포함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망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교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 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업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3. (화) 오후7시
- 장 소: 심미온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동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동산방합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2. 25(화)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온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온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직원 채용 모집공고

당사는 전국 지역 영업망 구축과 설계·영업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 직종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영업직	○명	합성목재 영업
설계직	○명	합성목재 데크 및 울타리 설계

전국 지사 및 지사장 협력업체 모집 안내

당사는 조달청 우수제품(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제품(합성목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전문제조회사로 전국의 지역별 총판(관급 영업 및 협력시공업체)을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전국 시·군구
☑ 자격 및 우대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업경험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공서 납품경력자, 시공경력업체 등
☑ 주요 아이템: 합성목재 데크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도로시설물, 데크로드시스템, 확장형인도교
☑ 문의 및 접수: (주)에니우드·(주)이노스 마케팅팀 ☎ 033)746-8953 / anywood1201@naver.com

www.any-wood.com

장흥군 공고 제2020-209호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무연고 분묘 개장공고

장흥군에서 시행 및 보상하고 있는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편입 토지 내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계획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구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인 임의개장(이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가수

소재지	지 번	분묘가수	비고
전남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신228읍	1	무연고

2. 개장사유: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편입에 따른 개장(이장)
3. 개장방법
가. 유언분묘: 연구자가 신고 후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장 소: 장흥군 유치면 유치공설공동묘지
나. 기 간: 납골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 종료 후에는 집단 매장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20. 3. 13. ~ 2020. 6. 10.)
6. 유언분묘 개장신고
가. 신고 처: 장흥군 해양수산과
나. 제출서류: 연구자 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증서, 기타 입증서류 등)

※ 분묘 이장비는 장흥군 해양수산과에서 지급할 예정이므로 분묘 신고자께서는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 전 중 후 사진과 인감증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예금통장 및 개장신고필증(화장)의 경우 화장증명서 포함 등을 함께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가. 본 공고에 누락된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편입 토지 내 소재한 분묘(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나. 개장(이장)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해양수산과(061-860-6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3일
장 흥 군 수

총선 라운지

이형석 “착한 임대료 동참 물결 확대됐으면”

복구를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광주 복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의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해준 복구 지역 건물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5.18 정신인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일을



함께 도모하고 고통을 나누려는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재현되고 있다”며 “함께 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착한 임대료 운동의 동참 물결이 더욱더 확대되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형배 “한전공대 재원출연 보고안 의결 환영”

광산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의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재원출연 보고안’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한전공대 설립은 AI 산업단지를 비롯해 광주·전남의 상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당초 목표



했던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개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 안을 의결했

으므로 학교법인 설립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소하 “사회적 약자 편에 선 정치 하겠다”

목포 출마 선언

정의당 윤소하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1%를 위한 정치가 아닌, 99%를 위한 제대로 된 정치의 선봉장이 되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지난 50년, 목포에서 시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다”며 “불평등과 고통에서 신음하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장애인들에게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호남정치가 소위 ‘뺏다방’ 정치 관들에 의해 왜곡되면서 호남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수십 년 양당 권력정치를 이제는 끝내달라”며 “국민의 삶, 지역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한 야합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국회를 이제는 새로이 판갈이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주철현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거로 희망 전할 것”

여수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코로나 19로 여수 시민은 물론 국민의 불안과 상실감이 크다.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거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자”고 당내 경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코로나19로 타격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더 이상 네거티브가 없는 정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행복 백신을 전파하자”며 물론 집권여당의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여수 시민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더 이상 네거티브가 없는 정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